

# 박경효 행정학 강의계획서

“최근 기출문제의 흐름에 맞춰  
‘선택과 집중’에 따른 내용 설명과 올바른 답안지 작성연습에 중점을 둔  
**고득점을 위한 행정학 강의!**”

## ■ ■ 담 당 박 경 효 박사

- 前)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전임교수
- 前) 행정고시 · 입법고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 前) 서울시 공기업 CEO 경영성과 평가단장
- 前) 중앙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 現) 월비스한림법학원 행정학 전임

## ■ ■ 강의일정 2022년 4/25(월) ~ 5/17(화), 총 17회 ※월~금 강의

## ■ ■ 시 간 [오후 실강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1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10분 ~ 5시30분 ※2회차부터 매일 복습형 실전모의고사가 진행되며, 실강반에도 필기자료를 제공합니다.

[저녁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6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6시 ~ 7시 / (강의) 7시10분 ~ 10시20분

[익일 오전영상반]: 개강일은 시험없이 8시40분부터 강의진행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10분 ~ 12시20분

## ■ ■ 강의교재 재미있는 행정학(박경효, 서점구매) + 3순환용 보충자료(무료제공)

## ■ ■ 강의방식 핵심내용 정리 + 문제풀이 + 최신 논문을 통한 출제 가능한 문제 파악

- ## ■ ■ 모의고사 출제방향
- 출제가능성이 높은 한국행정의 현안과제와 최근 논문을 중심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구성하며,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이론과 실제의 연계 차원에서 사례를 활용하는 문제에 중점
  - 총론과 각론의 내용을 아우르는 복합적 문제를 통해 개별주제에 대한 단순 기술이 아닌 그들 사이의 연계능력을 키움
  - 최근의 대학원 입학고사, 대학모의고사 등에서 나타난 교수들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

## 강의특성

- 기존 모의고사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한국행정의 현안과제와 최근 논문을 중심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구성합니다.** 또한 **이론과 실제의 연계차원에서 사례를 활용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출제합니다.** 총론과 각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통해 단순 기술이 아닌 세부내용들 간의 연계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행정이슈에 대한 이론과 한국적 실태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핵심내용을 정리합니다.**
- **5급공채, 입법고시 등 기출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의 의도와 이에 적합한 서술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최근의 학술논문들을 토대로 출제 가능한 주제와 이슈에 대비함으로써 수험적합성을 극대화한 최종마무리 강의입니다.**
- **중요주제의 내용을 압축 정리하는 동시에 세부주제간 연계능력을 강화하여 통합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 최근 기출경향을 적극 반영한 실전모의고사와 자세한 강평을 통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작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 교재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줄이는 대신 **최근 기출문제의 흐름에 맞춰 '선택과 집중'에 따른 내용 설명과 답안지 작성방법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강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강의, 분석적인 답안작성을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 강의방향 및 초점

최근의 출제경향은 한마디로 의미 있는 한국 행정현실을 대상으로 이론적 연계를 통한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에 있습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학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이슈들이 관료제의 정치성과 책임성(2016), '영혼 없는 공무원'을 둘러싼 논쟁(2017), 공공성과 행정추진체제(2018), 적극행정과 기대이론(2019), 사회위기 하에서의 정부역할, 공공갈등과 공론조사(2020) 등과 같은 문제들로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 기출문제인 주인-대리인이론과 공공조직 문제, 민원담당친절공무원 선발제도와 동기부여이론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법고시의 출제경향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의 생각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부의 범위 또는 학습량의 측면입니다.** 3순환에서는 보다 출제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2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핵심주제다 보긴 어렵지만 행정학의 기본 이론이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의 정책수단이나 동기부여이론(욕구단계설)은 바로 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핵심주제뿐만 아니라 예비순환이나 1순환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 기본이 되는 주제에 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정책수단의 네 가지 특성이나 욕구단계설의 기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면 이는 학습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일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내용을 넓게 보면서, 핵심 주제들을 분석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알긴 아는데 막상 쓰기는 쉽지 않다"**는 학생들의 혼한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복합적 요인들이 담겨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키워드 암기입니다. 아마 작년의 경우 강의시간에서 다룬 주인-대리인이론 관점에서의 공기업의 문제점, 이해충돌 방지의 유형 등을 기억했다면 1문의 물음에 접근하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2문의 경우도 정책수단의 특성과 계약 등 정책수단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답안서술이 훨씬 편했을 것입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는 막연하게 아는 것, 단순 암기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을 경우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에 관한 성찰입니다. 좋은 점수를 위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는 콘텐츠의 소화이고, 다른 하나는 답안작성에 관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전자가 충족되지 않는 한 후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근무성적평가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성과급을 실시하는 우둔한 짓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소목차나 키워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개선방안 역시 내용이 전제되어야 자신의 사고를 통해 연계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말하는 독창성이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학생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넷째, 답안작성(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교수들의 답안채점평을 보면 그 핵심은 “묻는 내용에 답하라, 구체(분석)적으로 그리고 근거를(사례 등) 제시하면서 서술하라”에 있습니다. 먼저 묻는 내용에 답하려면 지문을 잘 해석하고 지문과 연계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지문이란 문제의식인 동시에 여러분의 서술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론적인 장황한 서술, 다른 이론이나 내용과의 무리한 연계 등은 학생 입장에서 ‘내가 많이 안다’를 드러낼 뿐 채점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답안구성의 경우 큰 목차는 질문 순서대로, 소목차는 주제 관련 핵심내용이나 키워드를 중심으로 만들어나가면 됩니다. 묻는 바를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쓰기에 모자라는 시험시간에 넘치는 시도나 의욕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수백 번 이상 개인적으로 답안강평을 한 나의 경험으로는 배운 내용을 제대로 답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변죽만 울리고 핵심을 못 찌르는 경우가 다수인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문제이자 노력 부족을 말합니다. 투입하지 않으면 산출도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따라서, 3순환에서는 교재 내용에 대한 전반적 설명을 대폭 줄이는 대신 최근 기출문제의 흐름에 맞춰 ‘선택과 집중’에 따른 내용 설명과 답안지 작성방법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정리하는 강의,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강의, 분석적인 답안작성을 위한 강의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3순환이 될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 의 회 차	날 짜	핵 심 강 의 주 제
■ 제 1 회	4월 25일(월)	전반적인 강의내용 소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그 시사점
■ 제 2 회	4월 26일(화)	주요 행정이념(형평성, 공익, 공공성, 가외성 등) 및 행정이론(신행정학, 공공선택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학, 신제도주의 등)
■ 제 3 회	4월 27일(수)	정치와 행정, 관료제의 자율성과 통제, 행정책임성과 관료부패, 공직가치
■ 제 4 회	4월 28일(목)	관료제와 정책과정(담론적 접근), 공공갈등(공론화), 정부신뢰
■ 제 5 회	4월 29일(금)	정책과정과 정책이론(일선관료제의 재량권, 쓰레기통모형, 정책의 창 모형, 정책공동생산, 정책순응 등)
■ 제 6 회	5월 2일(월)	신공공관리의 개요, 우리나라의 신공공관리적 정부개혁
■ 제 7 회	5월 3일(화)	신공공관리의 주요 개혁제도와 기법(1): 성과관리(성과급제), BSC
■ 제 8 회	5월 4일(수)	신공공관리의 주요 개혁제도와 기법(2): 시장지향적 정책수단
■ 제 9 회	5월 5일(목)	정부규모론, 신공공관리의 대안: Post-NPM(신공공서비스론, 공공가치론 등)
■ 제 10 회	5월 6일(금)	참여적 뉴거버넌스(PI제도 및 사례),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 및 사례, 정책수단의 변화,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
■ 제 11 회	5월 9일(월)	조직론의 주요 주제 Review
■ 제 12 회	5월 10일(화)	조직론의 최근 쟁점 정리(정부구조, 협업행정, 공직동기부여, 리더십 등)
■ 제 13 회	5월 11일(수)	인사행정의 주요 주제 Review
■ 제 14 회	5월 12일(목)	인사행정의 최근 쟁점 정리(보수체계, 성과급제, 다양성관리 등)
■ 제 15 회	5월 13일(금)	재무행정의 주요 주제 Review
■ 제 16 회	5월 16일(월)	재무행정의 최근 쟁점 정리(예산제도 개혁, 재정규율 및 준칙, 국가부채 등)
■ 제 17 회	5월 17일(화)	최종 정리 및 예상문제 검토